

국토교통부·행복청·산림청·서울시,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2022.10.12.

정부는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산림청,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월 14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협약에 따라 앞으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도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 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표준품셈 마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이후 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도 목조건축을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목조건축 사례: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상)과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하)
출처: 국토교통부, (2022), 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 10월 12일 보도자료.